



17일 오후(한국시각)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B조 2번째경기 한국-아르헨티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3번째 골을 허용하고 나서 아쉬워하고 있다. /연필뉴스

오늘은 고개를 떨궜지만 다시 힘내라 대~한민국

아르헨에 1-4 완패... 23일 나이지리아전서 16강 사냥

관련기사 3·4·5·7·9면



한국의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의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 5000만 국민의 염원을 담고 태극전사들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지만 아르헨티나의 높은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한국시각)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박주영의 자책골에 이어 곤살로 이과인에게 헤트트리를 허용하며 1-4로 무릎을 꿇었다. 이청용의 만회골로 가까스로 영패를 모면한 완패였다. 조별리그 개막전에서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하고 기본 좋게 출발했던 한국은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에 털미를 잡히면서 1승1패를 기록했다. 이날 같은 B조의 그리스와 나이지리아의 경기는 그리스가 나이지리아에 2-1로 역전승을 거두며 1승1패로 기사화생했다. 한국은 오는 23일 새벽 3시30분 더반 모저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2연승을 달린 아르헨티나에 완패하며 B조 선두 자리를 내준 한국은 나이지리아와 최종전에서 승리한다면 2위 자리를 꿰차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살아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전반 10분 메시를 수비하던 열기훈이 메시와 영키면서 첫 옐로카드를 받는 등 몸을 던진 태클로 공세를 막아냈지만 전반 17분 빠이론 자책골로 선제골을 헌납했다. 한국은 양현 대마리아를 수비하던 오병석의 파울로 왼쪽 페널티지역에서 프리킥을 허용했고 '원발 마술사' 메시가 키커로 나섰다. 메시는 공격수들의 머리를 겨냥해 날카로운 크로스

를 올렸고 골지역 정면에서 살짝 휘어진 공은 박주영의 오른쪽 정강이를 맞고 굴절되면서 통탄의 자책골이 되고 말았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전반 33분 또 한 번 아르헨티나에 골문을 내줬다. 아르헨티나는 로드리게스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자 니콜라스 부르디소가 백헤딩을 했고 오른쪽 골지역에서 도사리던 이과인이 헤딩으로 우겨넣어 2-0을 만들었다. 2점차로 뒤져 실의에 빠졌던 태극전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추가골을 만들었다. 이청용은 전반 추가 시간에 후반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박주영이 헤딩으로 떨어뜨려 주자 문전으로 돌진했다. 수비수 마르틴 데미켈리스가 걸어나려고 주춤하는 사이 이를 놓치지 않고 공을 빼앗은 뒤 오른쪽 아웃사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를 올렸고 골지역 정면에서 살짝 휘어진 공은 박주영의 오른쪽 정강이를 맞고 굴절되면서 통탄의 자책골이 되고 말았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전반 33분 또 한 번 아르헨티나에 골문을 내줬다. 아르헨티나는 로드리게스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자 니콜라스 부르디소가 백헤딩을 했고 오른쪽 골지역에서 도사리던 이과인이 헤딩으로 우겨넣어 2-0을 만들었다. 2점차로 뒤져 실의에 빠졌던 태극전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추가골을 만들었다. 이청용은 전반 추가 시간에 후반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박주영이 헤딩으로 떨어뜨려 주자 문전으로 돌진했다. 수비수 마르틴 데미켈리스가 걸어나려고 주춤하는 사이 이를 놓치지 않고 공을 빼앗은 뒤 오른쪽 아웃사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아넣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들어 기성용을 빼고 김남일을 투입해 김정우와 더불어 불란테로 세위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과인과 메시가 활거운 한국의 문전을 농락했다. 메시는 후반 31분 왼쪽 페널티지역을 돌파하고 나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에 막혀 나온 불을 메시가 다시 찼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이과인이 달려들며 빈 골문에 차 넣었다. 이과인은 이어 4분 뒤 헤딩골로 헤트트리를 완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개막

▶ 화보·100배 즐기기 12·13면

광주일보사와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후원하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이 18일 프레오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22일까지 66일간의 대항연을 펼친다. 이날 오후 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구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송귀근 광주시행정부시장, 이계호 전남도행정부지사, 안영률 광주지방법원장,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이상열 조선대 부총장, 정순이 광주미술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 앞서 오후 3시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지역 미술 교사들을 위해 전시 작품을 먼저 공개하고, 소개하는 프레오폰 행사를 연다. 프레오폰은 유리 공예 불모지인 광주·전남 지역에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의 진수를 첫 소개하는 등 일선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펼쳐진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세계 최고의 유리 장인 피노 시노레토(Pino Signoretto)의 대표 작품 등 20여 점을 비롯해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인 스키타본(Schiavon) 가문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유리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인다. 또 스키타본 가문의 대표 작가 카티아(Katia)씨가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나누어주는 특별 체험행사 등도 결성여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교도소 부지에 인권센터”

강운태 당선자 검토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17일 “이전을 앞두고 있는 광주교도소 부지에 ‘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3년까지 광주교도소를 광주시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강 당선자는 또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열린 인권 관련 기관·지역으로 간담회에서 ▲인권 전담부서 설치 ▲인권지수 개발 ▲인권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민주·인권도시로 자리매김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당선자는 인권지수 개발과 관련 비정규직 감축이나 여성경제인들의 참여비율 향상, 범죄와 청소년 비행 예방 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

립하고 이 과정에 광주시교육청·검찰·경찰·기업·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 안성례 오월어린이집 관장, 정동년 5·18 30주년 행사위원회 위원장, 김태봉 광주시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노미덕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최고의 영광을 향하여 선보이는 대형 유리 작품 전시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2010. 6. 19(토) ~ 8. 2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립미술관)

- 전시시간: 10:00 ~ 18:00 (토요일 휴무)
- 문의전화: 062-222-0180
- 입장: 무료 (특별 관람객 유료)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주관: VENICE GLASS FANTASIA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문화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 문화관광과,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FANTASIA

2010. 6. 19(토) ~ 8. 2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립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주관: VENICE GLASS FANTASIA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문화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 문화관광과,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 광주광역시관광진흥재단